

# 농어촌공사장에 김인중 전 농식품부 차관 임명



## 고병일 광주은행장, 5·18민주묘지 참배

광주은행은 지난 1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이 동참했으며,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함께한 임직원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오월영령의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기자”며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항토은행으로서 5·18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민의 삶에 힘이 되는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 유은학원 총동문회, 민주열사에 헌화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고·광주동성고·광주동성중·광주동성여중) 총동문회가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유은학원총동문회 박규환 회장, 김영석 상임수석부회장, 김철남(광주여상고 총동문회장) 수석부회장, 오경미 상임부회장, 박민규 사무총장 등 현 집행부와 최영태 전 회장, 나명엽 전 사무총장, 이명자(전 오월어머니집 관장) 전 광주여상고 총동문회장 등 역대 회장·사무총장단·광주여상 총동문회장단, 초대 5·18부상자동지회장이지현 동문 등이 참석했다.

광주동성고 선영구 교장과 학생회 김지후 회장, 기장혁·조조 부회장 등도 동행했다.

1묘역에 묻힌 박효선 작가의 연극 ‘금희의 오월’ 주인공인 광주상고(현 광주동성고) 28회 이정연(당시 전남대 사범대학 상업교육과 2학년) 열사, 계엄군 집단 발포 때 도청 앞에서 숨진 31회 이성규(당시 2년) 열사, 전남도청 최후 항쟁 하다 산화한 32회 문재학·안종필(당시 1년) 열사의 묘소를 각각 참배·헌화했다.

2묘역에 잠들어 있는 이명자 전 총동문회장의 부군인 정동년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묘소와 3묘역에 안장된 이한열(당시 연세대 2년·동성중 32회) 열사 묘소를 잇달아 참배했다.

오는 18일 학생회 주관 기념식을 갖고 5·18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계획이다.

박규환 회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결사 항전했던 후배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학생들이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삶을 통해 오월 정신을 공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 광주YMCA, 오월정신 계승 묘지 참배

광주 YMCA는 5·18민주항쟁 45주년을 앞두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배들에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배에는 광주YMCA 임원진과 회원, 청소년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립 5·18민주묘지에 마련된 명노근, 백영흠, 윤영규, 이광우, 김천배, 이성학, 이영생, 강신석, 노희관 열사 묘역을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을 진행했다.

나일도 광주YMCA 이사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선배들의 뜻을 잊지 않고자 참배를 진행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YMCA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식량·농촌정책 분야 전문성  
식량정책관 시절 쌀값 안정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주도



한국농어촌공사제12대 신임 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

14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신임 김인중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

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4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보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 제58대 차관을 역임했다.

김 사장은 약 30년 간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농정전문가로 손꼽힌다.

농어촌공사와 밀접한 식량정책과 농촌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식량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쌀값을 안정시켰으며 현재 농업 직불제의 근간이 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차관보·차관 시절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제도도 도입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다.

김인중 사장의 취임식은 15일 농어촌공사 나주 본사에서 개최된다. 홍승헌 기자

## 김동민 조선대병원 교수, 국가연구과제 선정

### 감염병 진단키트 개발·검증

조선대학교병원은 김동민 감염내과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김동민 교수가 선정된 과제는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분야로, 감염병 진단기술 강화를 위한 국가 중점 연구사업 중 하나이다.

김 교수는 ‘POC-qPCR 플랫폼 기반 야외활동 감염병 5종 신속 진단키트 개발 및 시제품 성능 검증’ 과제를 주바이오니아와 함께 수행한다.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약 21개월간 2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감염병의 현장 신속 진단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의료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이라는 보건 의료 R&D 정책 방향에 따라 △보건 의료 기술 수준 향상 △지역 의료 형평성 제고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주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환준 기자

## 오형훈·김제성 교수, 국제학술대회서 수상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소화기내과 오형훈 교수와 김제성 교수가 국제 학술대회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

오형훈 교수는 최근 제8회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IMKASID 2025)에서 ‘대장암의 비근거적 내시경 절제술 후 잔류암 및 림프절 전이 위험 요인: 다기관 후향적 연구’ 제목의 초록을 발표해 신진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해당 연구에는 주영은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오형훈 교수는 대장암 환자 중 내시경으로 종양을 제거했지만, 완전 절제가 되지 않은 경우(비근거적 절제)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나 림프절 전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했다.

비근거적 절제 환자의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제성 교수도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소화기학회 국제심포지엄(SIDDS 2025)에서 ‘말포르민 A1은 인간 대장암 세포에서 5-플루오로우라실 유도 세포사멸 및 세포주기 정지를 증폭시킨다’ 제목



오형훈 교수 김제성 교수

의 초록을 발표하고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 역시 주영은 교수가 교신저자로 함께했다.

해당 연구는 천연물질인 말포르민 A1이 항암제의 효과를 어떻게 강화하는지를 분석한 실험 연구다.

이 물질이 대장암 세포에서 세포자멸사(암세포 사멸)와 세포 주기 정지를 촉진해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향후 항암 치료에서 천연물 기반 보조 요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로 평가된다.

김제성 교수는 “이번 수상은 화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활발한 학술 활동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성과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 박영신 조선대 교수, ESF 개최 주관

조선대학교는 박영신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교수가 지구과학올림피아드 한국위원장 자격으로 ‘2025 아시아 지구과학 페스티벌’을 주관해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다.

ESF는 아시아권(한국·일본·대만) 3개국에서 선발된 지구과학 우수 고등학생들이 지구과학 연구와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교류하는 국제 행사다.

2023년 일본, 2024년 대만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세 번째로 개최된다.

한국 대표단은 ‘지구과학 어벤져스’라 불리는 학생 11명을 선발해 총 3단계에



걸친 지구시스템 교육 및 평가 과정을 이수한 인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국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지구시스템 교육, 전문 관측, 야외 지질답사,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학적 소양과 협업 역량을 키운다.

박영신 위원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 광주시교육청 ‘우리학교 홍보단’ 발대식

광주지역 학생들이 소속 학교의 숨겨진 자랑거리를 알리는 활동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2025년 우리학교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학교 홍보단’은 학교에서 추천한 사진 촬영, 영상 제작, SNS 운영 등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31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홍보단원은 앞으로 ‘우리 학교를, 우리가 직접 홍보한다’는 기치로 소속 학교를 곳곳에 알리고 △학교 소식 홍보 △광주 교육 SNS 모니터링 △미디어 활용 교육 참여 등 활동을 펼친다.

시교육청은 홍보단원들이 주차별 미션

및 이벤트를 통해 각 학교의 다양한 활동 사진 및 영상 콘텐츠를 SNS에 게재한다.

고등학생 홍보단 대표 송의과학교술고등학교 안도영 학생은 “지나해에 이어 올해도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는 우리 학교에서 하는 특별한 행사와 활동 등을 열심히 소개해 홍보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이 ‘우리학교 홍보단’ 활동을 통해 광주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훌륭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학생들과 소통하며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 동신대-한전KDN ‘혁신캠-오픈캠’ 추진

동신대학교가 한전KDN(주)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혁신융합캠퍼스-오픈캠퍼스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에너지 ICT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동신대는 최근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한전KDN과 혁신융합캠퍼스-오픈캠퍼스 연계 시범사업 추진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혁신융합캠퍼스-오픈캠퍼스 연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ICT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커리큘럼 마련, 현장실습, 인턴십 등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 동신대가 추진 중인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사업, 전남도 RISE 시그니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력해갈 방침이다.

‘혁신융합캠퍼스-오픈캠퍼스’ 연계 시

범사업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인재 양성사업을 융합한 실무형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혁신융합캠퍼스는 공공기관 직무와 관련된 연계과정을 개설하고 공공기관은 전문가를 파견해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동신대는 지난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올해 혁신융합캠퍼스-오픈캠퍼스 연계시범사업 추진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공공기관과 대학이 힘을 모아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면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이 모이면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며 “상호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